

소식 ① 교육기부 진로체험 / 서울교육 인증기관 선정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서울교육 인증기관 선정



\* '민주야, 탐방가자' 프로그램 운영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2016년 하반기 서울교육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진로체험 기관인증제는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회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홈페이지에 인증사항 탑재와 우수 프로그램 홍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교육 인증기관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들에게 교육기부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주는 인증제입니다. 사업회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서울교육 기관인증제'는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창의감성교육배움터에 우수 체험활동기관으로 등록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야, 탐방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식 ② 2016 하반기 교사연수

## '선생님과 함께 하는 현대사 이야기' 진행



\* '선생님과 함께 하는 현대사 이야기'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위), 서울 시내 근현대사 유적지 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0월 22일~23일과 11월 19일~20일 2회에 걸쳐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현대사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초중등 선생님들과 함께한 이번 연수는 9월 12일 체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위탁사업 협약을 통해 사업회의 현대사 연수를 서울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은 정용욱 서울대 교수, 김지형 서원대 교수의 강의와 배성호 서울삼양초 교사, 문순창 김포제일공고 교사의 수업사례 나눔으로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은 서울 시내 근현대사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오전에는 연세대학교 내 이한열 기념비, 이한열 기념관과 경찰청 남영동 인권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이회영·이시영 집터, 서울 YWCA, 향린교회, 옛 반민특위 터, 옛 미문화원, 서울시의회, 성공회성당으로 이어지는 을지로와 시청 일대 근현대사 유적지를 도보로 답사했습니다.

이번 연수가 선생님들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고 역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학생들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2016년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



\*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자들의 단체사진(위), 대상을 수상한 '신라면' 모듬(아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공동주최한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가 2016년 11월 12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고등학교 학생 6명으로 구성된 '신라면' 모듬이 대상(국회의장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 위치한 신길역사유적공원에 역사적 특성에 맞는 벽화를 그리고 화장실과 기본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자고 안산시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전체 수상 모듬

구분	훈격	지역	모듬명(소속)
대상	국회의장상	경기	신라면(원곡고등학교)
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제주	V.I.P(신성여자중학교)
	행정자치부 장관상	경북	도시재생청소년지원단(영주시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여성가족부 장관상	경남	눈누난나(창원대산고등학교)
우수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상	경기	다함께(양지고등학교·원곡고등학교)
	울산광역시교육감상	울산	서논지(울산서여자중학교)
	경기도교육감상	경기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성남시청소년재단)
	대전광역시교육감상	대전	웨어스쿨(대전제일고등학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경기	토·마·토(석수청소년문화의집)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상	경기	파란만장(동안청소년수련관)
	전라북도교육감상	전북	ASPECT(청소년자치연구소)
	충청남도교육감상	충남	YES美인(연무고등학교)

\*우수상은 모듬 이름 기준 가나다, ABC 순

## 2016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최종 발표회 열려



\* '2016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최종 발표회 단체사진(위), 대상의 영예를 안은 '푸른 눈물' 모듬(아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 10월 8일 서울 시청역 부근 스페이스 노아에서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사업인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민주야 여행가자!'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7~8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한국 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 관련 지역 및 인물을 탐방한 25개 모듬(100명)의 탐방결과보고서를 심사해서 선정한 6개 우수 모듬의 탐방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에는 경희대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푸른 눈물> 모듬이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서울, 마산, 대구, 부산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탐방하면서 '사진으로 만나는 역사의 현장 - 푸른 눈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밖에도 영화와 연결한 탐방 활동, 여성노동운동을 특화하여 관련 인물들을 탐방한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최종발표회에 참여한 여섯 모듬은 심사 결과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장과 함께 모듬당 각각 4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새로 나온 책



### 『3선개헌 반대운동 사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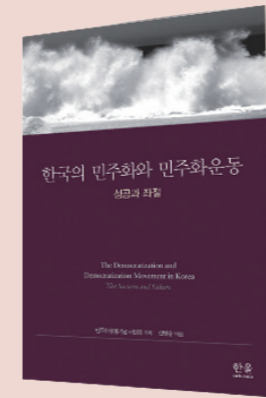
3선개헌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책의 일지와 1책의 사료영인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일지는 1966년부터 1969년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일간 신문과 잡지, 각종 자료 등을 통해서 일자순으로 상세하게 정리했고, 사료영인집 또한 당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선별 수록했습니다. 발간 사료집은 전국 대학도서관 및 사학과 사무실, 국립·시립·공공도서관에 배포됩니다.

사업회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결락을 보완하고자 당시 대학생(서울, 경북, 전남지역)과 고등학생, 언론인을 대상으로 약 46시간 분량의 구술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구술자료 역시 정리가 끝나는 대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사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와 선별과정에서 제외되어 수록되지 못한 자료도 정리 작업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archives.kdemo.or.kr)에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

지난 40여 년간 대전·충남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2년 여의 집필과정을 거친 이 책은 지역운동가 출신인 장수찬 목원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정순 목원대 신학과 교수가 집필을 직접 담당하고, 정기적인 편집회의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원고를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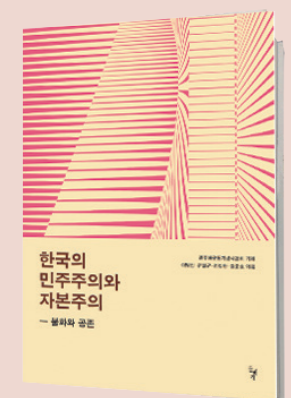
###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성공과 좌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서입니다. 특정 사건 전개 위주의 기술, 특정한 운동행위자 일변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노력에서 각 시기에 민주주의 이행 또는 공고화의 성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주화운동의 이론화를 시도했습니다.



###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고 공고화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랍 등 세계 9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비교 민주주의 연구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민주화 과정과 이행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으로 집필되었습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론과 민주적 자본주의론으로 확장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건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 경제학자 14인의 공동 연구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역의 민주주의 논의를 활성화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